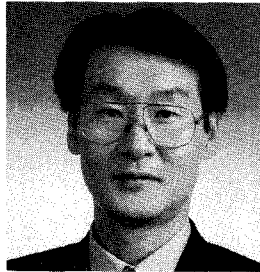


다 비 육 중



총무팀 김 윤 식

다비육중은 1983년에 윤희진사장(분회 부 회장)이 설립하여 경기도 안성군에 다비육중, 다비인터, 다비AI센타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GGP, GP돈군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국내 최대의 AI센타를 운영하며 종돈분양 및 정액공급을 하고 있는 농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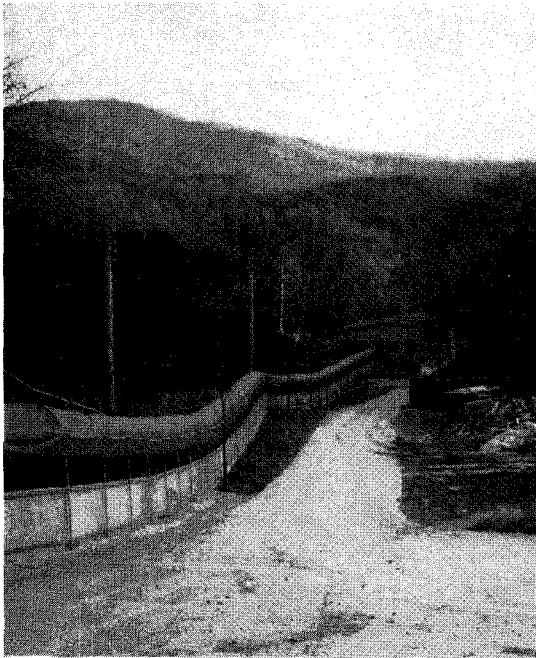
다비의 사업이념이라면 체계적인 육종방법과 과학적인 품질관리로 고능력 한국형 종돈을 개발하여 양돈농가에 우수한 유전인자를 공급하고 수준 높은 기술제공 및 친절한 서비스로 미

래 한국 양돈산업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2001년까지는 5개 GGP농장에 모돈 2,000두를, 그리고 20개 GP농장에 모돈 8,000두를 확보하고 전국에 10개의 AI센타 체인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 돈군을 S.E.W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돼지 전문병리진단센타의 운영과 연간 50,000두의 종돈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 국내 최초의 격리-조기이유 생산체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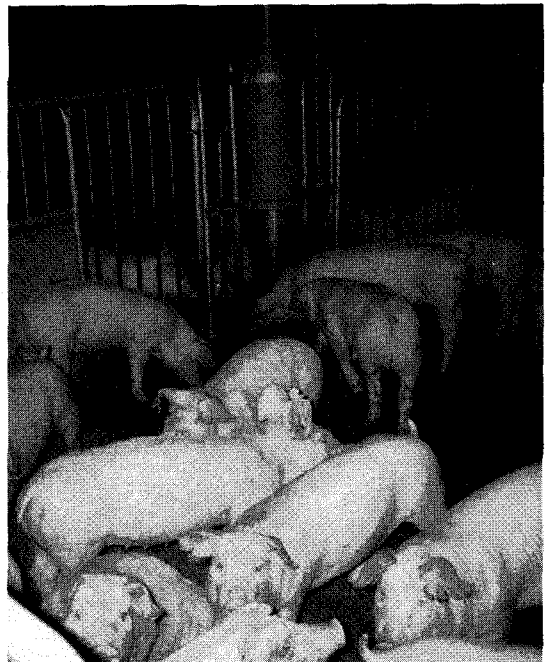
격리-조기이유(S.E.W : Segregate Early Weaning)란, 어린자돈을 모돈으로부터 질병이 전파되기전에 조기이유하여 격리된 자돈농장으로 이동한 후, 일령에 따라 돈군을 분리하여 사육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돈군보다 더



※ 육성농장입구 : 좌측에 있는 하우스길이는 종돈수송시 이동통로(유도로)이고, 중앙에 있는 건물이 출하장임.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위해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었음

욱 청정한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사양기법이다.

S.E.W의 효과로는 상재성질병인 PRRS, 홍막폐렴, 유행성폐렴, 유행성설사 등을 차단하고, 청정돈군의 생산으로 사양성적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양돈생산체계의 사양단계별 표준화, 전문화, 대규모협업화 및 분업생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 다비육종의 육성농장내부, 주별격리사육을 하고 있다.

다비육종의 S.E.W 시행방법은 17(16~18)일령에 조기이유하고, 번식후 자돈이 육성돈으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서 주간단위로 동시에 한 동기돈군을 입식시키고 출하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번식농장과 자돈농장 간에 거리를 17km이상으로 유지하여 격리 사육한다. 아울러 수송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돈수송 전용 밀폐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차량, 인원 등 철저한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필자가 취재차 다비육종을 방문할 때는 본회 종돈개량부 직원이 종돈검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함께 육성농장에 도착하였는데, 산고올에 길다란 축사가 4동 있었다. 입구는 타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굳게 잠겨져 있었고, 꼭 필요한 출입자(자체직원 등)는 철저한 소독을 하고 출입을 할 수 있었다. 더욱 재미있는 일은 농장 입실때는 샤워를 하여야 하는데 걸은 물론이거니와, 속 내의까지 농장에서 제공된 피복을 입고 들어가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다.

2. 다비육종의 방역수치

1) 사람통행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정문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후 발판 소독조를 필히 밟고 지나가야 한다. 단, 내방객은 방명록에 방문목적 및 시간등을 기록해야 한다.

농장을 방문하는 자는 항상 샤워를 실시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 외부인이 농장을 방문할

때는 경영지원부에 미리 출입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얻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2) 차량통행

다비농장은 항상 정문이 닫혀있다.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역실에서 차량을 소독한 후 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차량 소독조는 1일 1회 교체를 해야한다.

판매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정문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탑승자는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한 후 통과할 수 있다. 차량의 소독은 차체는 물론이고 하부 및 바퀴까지 소독한 후, 차량 소독조로 진입하여 안개분무 소독을 겸한다.

3. 번식농장의 관리

다비육종의 번식농장 관리내용은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6가지 사항을 꼭 지켜서 어린 자돈을 우수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모든 모돈관리는 체평점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임신사에서는 매주 1회 체평점을 측정하여 그것에 맞는 사료량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농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 관리가 모돈 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이 유후의 모돈관리는 짧은기간 동안 모돈을 충분히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관리가 따르고 있다.

둘째, 후보돈의 특별관리가 병행된다는 점이다. 돈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후보돈이 증가

하게 되고 이 후보돈의 관리가 농장의 차후 성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는 전담자를 두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었다. 돈군이 조성된 후에도 매월 55두 정도의 후보돈이 입식되므로 계속적으로 후보돈의 전문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첫중부일령은 평균 225일령에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사료관리 및 체중관리에 전담자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는 포유중인 모돈의 관리이다. 물론 다른 시기의 모돈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시기의 모돈은 짧은 기간동안 자돈을 일정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모돈의 포유능력이 곧 이 관리시스템의 다른 모돈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료 1일 3회 급여, 일일 급여량 관리 등 모돈의 포유능력을 최대화하는데 집중관리가 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관리가 다음의 번식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진행결과를 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조기이유가 번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7일내 발정재귀율을 실행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3.8% 개선되었으며, 평균 재귀일도 1.8일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결국 모돈의 다음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네째는 항생제 투약프로그램이다. 질병이 모돈으로부터 자돈에 전파되는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돈과 자돈에 집중투약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돈군의 위생상태를 조사하여 그 돈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확립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농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혹시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양형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위생평가가 선행된 후에 그 농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비육종은 종돈장이기 때문에 다른 비육돈농장과는 백신이나 항생제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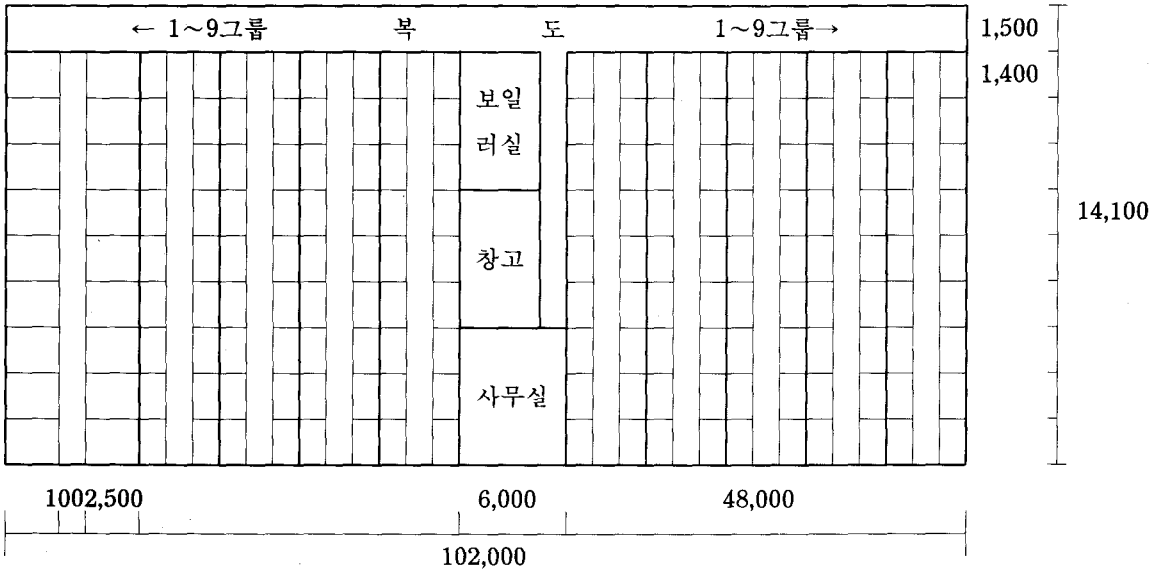
다섯째는 농장관리자의 전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번식농장은 18일령 이하의 자돈을 생산하는 전문농장으로, 업무나 실행방법이 모돈에 집중되어 관리된다. 다른 단계의 돼지에 대한 연구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이 없이 오로지 모돈에 대한 개선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문성 및 집약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는 입질사료를 급여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입질사료에 대한 견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7일령 이후부터 복당 100g 정도로 바닥에 뿌려주거나 입질용 급이기에 급여함으로써 이유후 사료의 적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4. 다비의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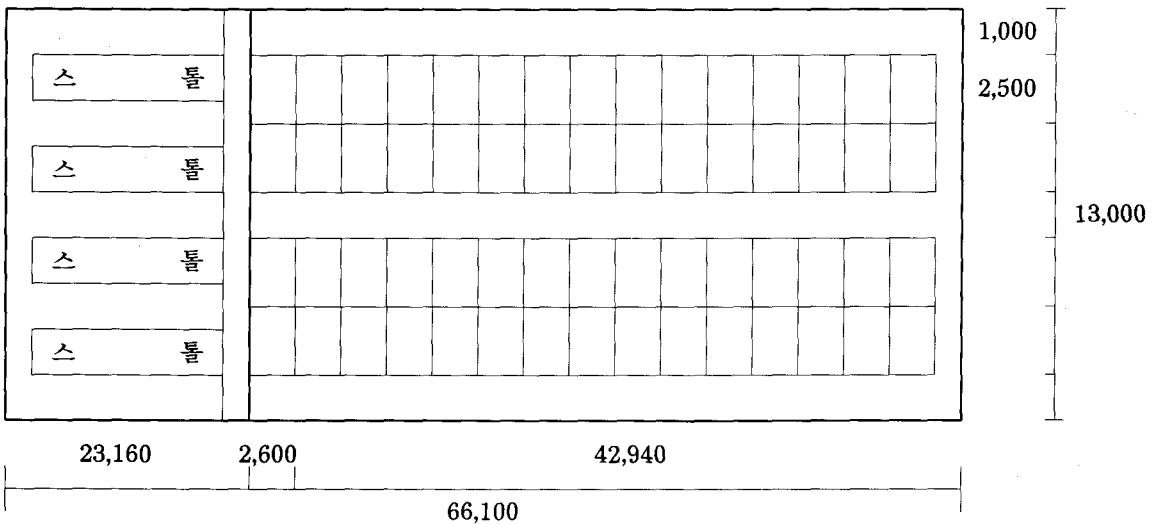
다비의 부지는 18,900평(자돈농장 3,120평, 육성농장 15,780평)에 건축면적 3,155평(자돈농장 615평, 육성농장 2,540평)이다.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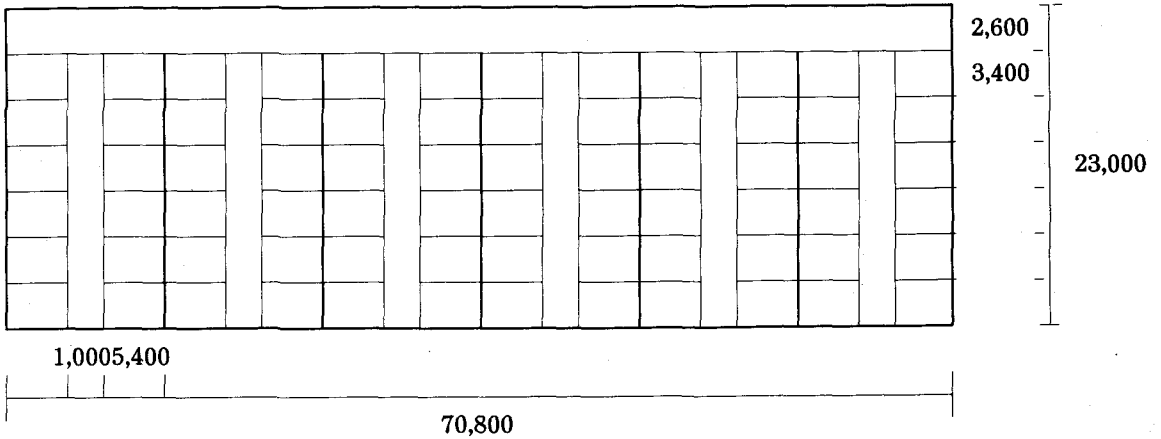
〈그림 1〉 자돈사 평면도(자돈농장)

(단위 : mm)



〈그림 2〉 교배, 임신돈사 평면도(육성농장)

(단위 : mm)



〈그림 3〉 육성돈사 평면도(육성농장)

자돈농장은 약 7주간 사육하며 총사육두수는 3,150두, 1그룹당 18돈방, 돈방당 12두를 수용한다. 입식은 매주 2회(수, 토요일) 1개 그룹식 매주 450두를 입식한다.

육성농장은 약 14주간 사육하며 총사육두수는 3,700두, 1그룹당 12돈방, 돈방당 20두를 수용한다. 입식은 매주 250두씩 한다.

교배 및 임신사는 육성농장에 있고, 임신돈 분양두수는 월 50두를 하고 있으며 총 356(임신돈 140두, 후보돈 200두, 웅돈 16두)두를 사육하고 있다.

참고로 다비육종의 자돈사, 교배·임신돈사, 육성돈사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5. 윤희진 사장의 몇가지 제안과 각오

윤희진 사장은 작년도 양돈업계에 대해서 흡족했다는 여유를 가졌다. 그 사유인 즉, '96년도 사상 최고의 사료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좋은 가격 수준으로 타 축종의 부러움을 받았던 한해였고 돼지고기 대일수출의 2억 \$에 달했으며, GGP 전문화사업등 여러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던 일들은 매우 희망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다만, 분뇨처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금년 7월부터 무제한 수입될 외국 돈육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

기 위하여 네가지 제안과 각오를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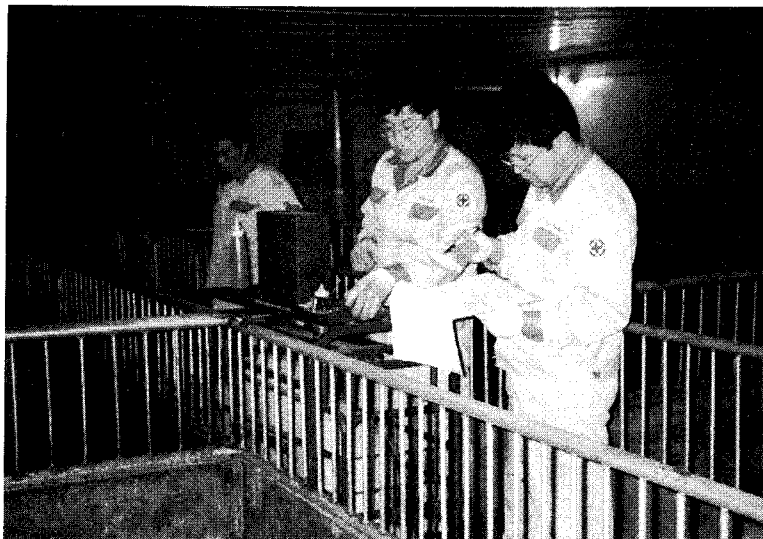
첫째,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핵심조직인 전국 10개의 양돈조합과 계열화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소비자홍보(특히, 위생문제와 건강문제에 관련한), 수출지원, 분노처리 연구지원 등 시급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고기나 육계처럼 뜻하지 않게 소비가 위축되거나 양돈을 하다가 구속되는 사태는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대일수출로 돼지가 호황이었다면 수출을 늘리도록 업계가 지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농장 생산부문에서는 협업과 분업체제로 변화시킨다면 대모확대와 위생문제 두가지

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농장일수록 번식전문(조기이유를 통한)과 자돈-비육 전문으로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한국의 종돈업계에서도 드디어 BL-UP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돈개량이 이제는 등록, 검정을 근거로 한 육종기분석을 통해 외국처럼 육질개량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중축개량협회와 GGP 협의회를 통하여 저 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다비육종은 7년째 접어드는 GP계약 생산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전체 GP돈군의 2~3 SITE화를 통하여 위생적인 종돈을 대량 공급하며 AI보급, S.E.W사육기법의 확산에 앞장설 것입니다. ■



본회 종돈개량부 직원들이 다비육종에서 검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광경